

‘만5세 입학’ 반대여론 속 공론화...사실상 ‘출구전략’?

정책강행·즉시철회 힘든 교육부 유아 공교육 강화안 마련할 듯 각계 철회 촉구 목소리 거세

교육부가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 나섰다.

반대 여론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지시하고 박순애 부총리가 직접 추진을 발표했던 학제 개편 카드를 며칠 만에 곧바로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을 사실상의 ‘출구전략’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한다.

박순애 부총리가 이미 밝힌 대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전문가 정책연구를 비롯해 이

해집단 의견수렴과 지역별 공청회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만 5세 입학에 대해서는 설문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게다가 입학연령 하향과 같은 학제개편은 앞선 정부들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미 명분으로서나 실리로서나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문 과정을 거친 적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없으므로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미 학부모들 사이는 물론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친 시간인 만큼 박 부총리 입장에서는 ‘즉각 철회’ 카드를 쓰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취학 방안을 ‘신속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다는 점, 박 부총리가 여전히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

는 점 등도 정책을 즉시 철회하는 데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번 위기를 발판 삼아 유아 교육 강화 등 그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에서 만 5세 입학 포함해 유보통합, 유아교육 강화, 미래사회에 걸맞은 학제 등 다양한 공교육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5세 입학’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학제개편 관련 간담회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은 정부가 내놓은 ‘5세 입학’ 방안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예비국립유치원교사연대 등은 박순애 장관의 광주 방문에 맞춰 광주시교정 앞에서 ‘학제개편 철회’ 등을 요구하며 트럭 전광판과 파켓시위를 벌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일 오후 학교 기숙사 내 소방시설 확대 방안 회의차 광주 서구 서석고등학교를 찾은 박순애 부총리(앞줄 왼쪽)와 교육부 장관이 만5세 학제 개편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국힘 광주시당, 복합쇼핑몰 유치 힘 모은다

정책간담회서 국비 예산 확보 논의 정책협의회 정례회·광주 발전 노력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등 현안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이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광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3일 시장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현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이례적으로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청 주요 간부들이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직접 방문해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과 지역 구별 당협위원장, 김용인 광주시의원, 박종철 시장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시장은 인사말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 인공지능 관련 사업, 반도체 특화단지, 미래 모빌리티,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함께 힘을 합쳐 챙겨야 할 현안들이 많다”며 “광주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광주시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성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면서 “특히 지역현안 해결과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광주시당이 열심이 뛰겠다”고 밝혔다.



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시 간부들과 국민의힘 시장 관계자 등과 함께 광주발전을 위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러면서 “정책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광주시민께 약속한 광주 발전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복합쇼핑몰 유치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대선과 지방 선거 공약임을 확인하고 민간, 광주시, 정부,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와 전남대학교병원 신축 지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다담 센터 광주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주요 현안으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유치 ▲인공지능 2.0+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추진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완성 ▲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 ▲영산강·황룡강변 Y벨트 역사이팅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지사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

선거공보 분야 수상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2년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평가에서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우수 공약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2개 분야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를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민선 8기 시·도지사,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등에 대한 1차 평가와 공적서에 대한 2차 평가가 이뤄졌다.

김 지사는 선거기간 중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행복 최우선이라는 평소 철학을 담아 ‘대

도약! 전남 행복시대’라는 비전과 8개 분야, 63개 과제를 제시했다. 평가위원들은 평가항목인 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 명확성 등 5개 지표를 비롯해 지자체장의 철학 및 비전, 작성 과정의 민주성 등에 높은 점수를 줬다.

김영록 지사는 “민선8기 공약이 좋은 결과를 받은 만큼 이제는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민 한 분 한 분께 힘이 되는 든든한 도지사가 되겠다”며 “세계로 뽐내려는 전남! 위대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민선8기 전남 비전·공약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난 7월 말 도민보고회에서 100대 공약, 60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바 있다. 도민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공약 실천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정훈, 지방선거 4월말로 변경 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2일 ‘4월 말’로 지방선거 시기를 앞당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 ‘임기만료일이 있는 연도의 4월 마지막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는 2026년 4월29일 실시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상 지방선거는 6월 초중순경에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가장 바쁜 농번기 기간인 5월 중 하순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운동에 따른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투표를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 지방선거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선된 후 취임하기까지 약 20여일의 시간밖에 없어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등을 시작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h2>상무지구(상가매매)</h2>	<h2>당진(신축)원룸매매</h2>	<h2>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h2>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table border="1"> <tr> <td>광주</td> <td>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td> </tr> <tr> <td></td> <td>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td> </tr> <tr> <td></td> <td>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td> </tr> <tr> <td></td> <td>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td> </tr> <tr> <td></td> <td>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td> </tr> <tr> <td></td> <td>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td> </tr> <tr> <td></td> <td>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td> </tr> <tr> <td>전남</td> <td>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td> </tr> <tr> <td></td> <td>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td> </tr> <tr> <td></td> <td>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td> </tr> <tr> <td></td> <td>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 </tr> <tr> <td>시외</td> <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td> </tr> <tr> <td></td> <td>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td> </tr> </table>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p align="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